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6월 4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3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6. 3.(목)	담당부서	에너지혁신정책과
담당과장	윤요한 과장(044-203-5150)	담 당 자	이연 사무관(044-203-5125)

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12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 참석

-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정책 등 에너지전환 노력 소개 -

□ **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문승욱) **에너지혁신정책관**은 6.3(목) **제12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***(영상회의)에 참석하여 CEM 회원국, 국제기구 및 주요 에너지 기업 대표들과 **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방안**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.

* Clean Energy Ministerial(CEM): '10년 美 에너지부 주도로 설립된 회의체로,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가 주요 목표

○ 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**각국 청정에너지 정책 성과 및 향후 목표를 공유**하고, **상호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**하였다.

□ 먼저 이 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, **전세계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방안**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**금번 회의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**하며,

○ 그간 한국은 재생에너지 확대, 석탄 발전과 원전 감축 등을 통해 **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**해왔고,

○ 향후 **❶화석연료기반 발전 축소, ❷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계통 수용성 제고, ❸수소경제 인프라 확충, ❹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 가속화** 등 전 방위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.

□ 이 정책관은 **P4G 서울 정상회의 에너지세션**(5.31) 참석자들이 **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혁신** 및 **개도국의 청정에너지 중심 성장**을 위한 **국제사회의 지원 필요성**에 대해 공감하였음을 설명하며,

○ CEM에서도 **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방안**에 대해 **회원국간 활발한 논의**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.

□ 끝으로, 이 정책관은 한국정부는 **연내 NDC 추가 상향,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**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청정에너지 확산에 힘쓸 계획인바, 그 과정에서 **한국의 정책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**하는 등 **CEM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**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.

□ 참여국들은 각국의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노력이 **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**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공감하며, **청정에너지 미래를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**해 나가기로 약속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 박성일 사무관(☎ 044-203-5126) 또는 미주통상과 우석중 사무관(☎ 044-203-565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